

거룩이 능력이다

성경 사사기 13:1-7

신 67 쉼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세상과 구별된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죄가 아닌 성령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길
바라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거룩한 삶의 습관이 뿌리내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신실하게 진실하게 (은혜의 찬양 74장)

- 1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 2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 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2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가 289장)

- 1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 2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 3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 4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 5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후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말씀 읽기 사사기 13:1-7

- 1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 2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 3 여호와와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 4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 5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므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 6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우므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 7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본문 배경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억압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구원자가 될 아이가 태어날 곳은 소라였으며, 그의 부모는 단 지파에 속한 마노아와 아이를 낳지 못한 그의 아내였습니다(2절).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선포하고(3절), 두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째, 마노아의 아내는 이제부터 특별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니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되며,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4절). 둘째, 태어날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쳐졌기 때문입니다(5절). 민수기 6장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나실인은 세 가지를 금해야 합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되며,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되고, 죽은 사람이나 짐승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실인은 성별과 관계없이 서원하면 될 수 있었으며, 그 기간 역시 서원에 따라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경우처럼 모태에서부터 정해진 나실인은 죽는 날까지 평생 여호와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7절).

말씀 관찰

1 이스라엘이 다시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1절)

답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해설 이스라엘은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예전처럼 행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죄를 지어 블레셋에 의해 40년간 압제를 받습니다. 한두 번의 잘못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번이나 반복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닌 습관입니다. 그만큼 죄의 중독성은 강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고통받았음에도 죄를 끊지 못합니다. 죄의 관성이 몸에 뱓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죄악의 관성을 거룩으로 깨야 합니다.

2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어떤 삶의 규정을 지켜야 했나요? (4-5절)

답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해설 마노아의 가정은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모습 자체가 하나의 상징입니다. 불임, 즉 생명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가정이 걱정하고 출산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찾아와 아들을 주겠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응답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지켜야 할 거룩한 삶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4-5절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렇습니다. 회복은 거룩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회복이란 다름 아닌 거룩한 삶의 기준의 회복입니다.

말씀 적용

1 나에게는 어떤 관성이 있습니까? 습관을 따라 반복하는 죄가 있다면 솔직하게 나눠 보세요.

2 우리 가정이 거룩한 습관으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함께 노력해 보자고 제안해 보세요.

2-2 나는 너희의 하나님

레위기 11장 45절

♩ = 73

작곡 이종윤

$B\flat M7$ $B\flat m6$ $A m7$ $D m7$ $G m7$ $B\flat/C$
 나 는 너 희의— 하 나 님 이 되려— 고 너 희를—
 4 $C m7$ $F sus4$ F/A $B\flat M7$ $B\flat m6$ $A m7$ $D m7$
 애 굽 땅 에서 인 도 하— 여 낸 여 호 와 라 —
 7 $G m7$ F/A $B\flat$ $B\flat/C$ F
 내 가 거 룩하— 니 너 희 도 — 거 룩 할 지— 어 다
 10 $G m7$ F/A $B\flat$ $B\flat/C$ F
 레 위 기 — 십 일 장 사 십 오 절 아 — 멘

Copyright © 2022 이종윤 Administered by KwangsooMedi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가정에배 기도문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죄악 된 관성이 깨지게 하소서. 오직 거룩한 습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가정의 뿌리가 하늘나라에 깊이 자리잡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